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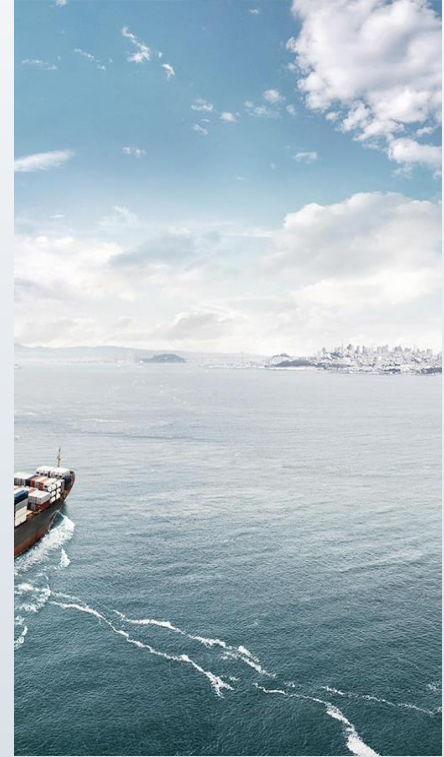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81

Updated January 14,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ISSUE & TREND

1. 원유운반선 발주 늘어난다..."미국-이란 갈등 영향 제한적"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에도 올해 원유운반선(VL 탱커) 발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는 13일 리포트를 통해 "원유 해상 물동량은 매년 2~3%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020년 원유 해상 물동량은 8400만 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근거한 VL 탱커 신규수요는 62척이다. VL 탱커 1척이 5항차 기준 연간 135만 t 가량을 수송하는 것을 고려한 수치다. 이렇게 되면 2015년 69척 이후 가장 많은 발주량이 된다.

중동발 불안이 원유운반선 발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이유는 세계 원유 물동량이 늘어나는데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가 부상하면서 중동 국가들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2017년 세계 1위 원유 수입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됐고, 중국으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2015년 가을을 기점으로 사우디에서 러시아로 바뀌었다.

이란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출량은 지난해 들어 더욱 줄어든 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출량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전세계 원유 물동량은 31억 4000만 t으로 전년에 비해 3.0% 늘어나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2.0%를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증권사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이란과 미국간의 갈등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원유운반선 발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할수록 단기적으로 VL 탱커 운임이 오르게 되며(보험료 인상 등) 이란 국영선사가 보유한 38척의 VL 탱커를 대체하려는 신규 선박 주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2~3% 수준의 원유 해상물동량 증가는 연간 135만톤을 수송할 수 있는 VL 탱커 50~60척의 신규 발주량을 유발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I . ISSUE & TREND

원유운반선 발주 증가는 국내 조선사에도 긍정적이다.

VL 탱커 시장의 수주 경쟁은 전통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양분해왔다. 두 조선소의 VL 탱커 점유율은 60%에 육박한다. 지난해 VL 탱커는 31 척이 발주됐는데 대우조선해양 9 척, 현대중공업그룹(현대삼호중공업 포함)이 9 척으로 가장 많이 수주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중국 역시 VL 탱커 수주량이 많지만 이들은 자국 발주물량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며 "2020 년 VL 탱커 수주 역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수주량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해운 必환경 시대...조선·해운 LNG 로 쌍끌이

'IMO2020'의 본격 발효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가 해운·조선업계의 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LNG 운반선 발주 확대를 비롯해 LNG 연료 사용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전망되면서 우리 조선 및 해운업계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14 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1 월 1 일을 기점으로 선박의 황 산화물 배출을 규제하는 IMO2020 을 본격 시행했다.

이같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상선 시장에서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선박들의 발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친환경·효율적인 방안으로 LNG 연료가 주목받으면서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탈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같은 시장 흐름을 타고 LNG 선 수주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조선 빅 3(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이미 관련 시장에서 기술 노하우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I . ISSUE & TREND

지난해에는 전 세계 LNG 선 발주량 61 척 가운데 49 척을 수주했다. 올해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다수 예정된 가운데 국내 빅 3의 집중 수혜가 예상된다.

해운시장도 글로벌 LNG 물동량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말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셸(SHELL)과 LNG 장기 대선 계약을 틈 데 이어 주요 화주 개발을 통한 LNG 운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내 해운사들은 LNG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해운과 팬오션, 현대 LNG 해운, SK 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은 연합체를 구성해 카타르 LNG 운송계약 수주에 도전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 환경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LNG가 주요 사업 키워드로 해운 및 조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수주 실적을 쌓아 LNG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남외항에 벙커링 정박지 운영

부산항 남외항에 급유나 선용품 선적 등을 위해 단기간 기항하는 선박을 위한 벙커링 정박지를 운영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남외항 N-3(1만 T 이하), N-4(2만 T 이하), N-5(2만 T 이상) 등 3곳 정박지 6곳(각각 2선석)을 단기간 기항 선박 정박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항 정박지가 가득 차면서 급유나 선용품 등을 선적하기 위해 기항하는 선박들이 정박지 밖에서 3~4일 대기해야 하면서 부산항 기피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 선박이 하루 최고 30여 척에 달하고 이들 배들이 항로 인근에 무질서하게 정박하면서 선박 충돌 등의 우려가 높아 벙커링 정박지 운영에 나선 것.

적당 이용시간은 6~10시간이다. 선사 측이 이를 어기면 추후 정박지 이용 등 부산항 이용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I . ISSUE & TREND

BPA는 대기 선박이 없을 경우 정박지 운영은 평소대로 정상 운영기로 하는 등 정박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남기찬 BPA 사장은 "벙커링 정박지 운영은 정박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항 항만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부산항 이용 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하게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4. 국제 유가, 중동 긴장 완화에 진정세...美中 합의 주시

이달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한풀 꺾이면서 진정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추가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어 들면서 다가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를 주목하고 있지만 이란을 둘러싼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3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배럴당 64.94달러를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0.06% 빠졌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59.05달러로 0.02% 올랐다. 브렌트유와 WTI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이란군 장성을 암살한 3일을 전후해 약 4% 가까이 급등했고 6일 각각 배럴당 68.91달러, 63.27달러까지 올랐다. 유가는 8일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군사 대응을 자제하겠다고 밝히자 크게 빠졌다. 13일 시세는 이달 고점대비 약 6%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를 꼽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3일 미군의 폭격에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소장이 "미 대사관 4곳을 목표로 (공격 계획을 꾸몄다는)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를 정당화하면서 그가 해외 미 대사관 공격을 꾸미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탄핵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란 문제에 신경을 쓰기 어려워졌다.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오는 14일 정례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을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낼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란 역시 미국과 계속 대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8일 이란군의 민항기 격추에 항의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11일부터 수도 테헤란을 시작으로 지방도시까지 퍼졌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인 시위대는 12일에도 거리에 나와 이란 정부와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했고 경찰과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 등) 모든 것은 그들(이란 정부)에게 달려있다"며 "다만 핵무기는

I . ISSUE & TREND

없어야 하고 시위대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정부가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추가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비밀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전문매체인 오일프라이스는 12일 보도에서 중동 긴장 완화와 더불어 미국 셰일 석유를 지적하며 유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인기 공격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동안 시장에 대량의 미국산 석유가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재 시장의 관심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양측은 오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며 양측의 무역 긴장이 해소된다면 유가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가 아직도 이란 석유를 사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재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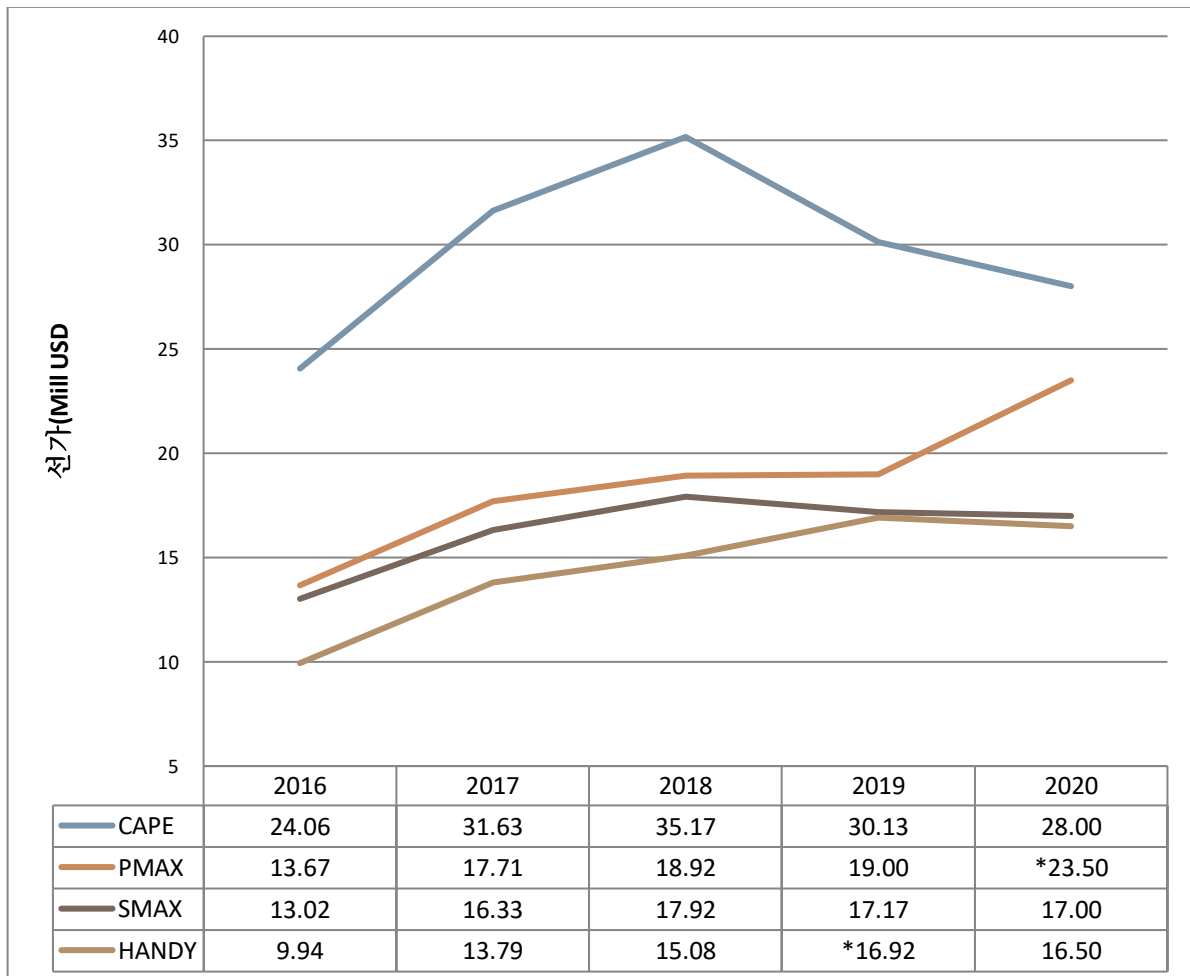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8.00
	-24.99%	31.43%	11.20%	-14.34%	-7.05%
Kamsarmax 82K <small>*'19년까지는 76K 기준</small>	13.67	17.71	18.92	19.00	*23.50
	-19.80%	29.57%	6.82%	0.42%	23.68%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7.00
	-16.91%	25.44%	9.69%	-4.20%	-0.97%
Handysize 37K <small>*'18년까지는 32K 기준</small>	9.94	13.79	15.08	*16.92	16.50
	-23.32%	38.78%	9.37%	12.18%	-2.46%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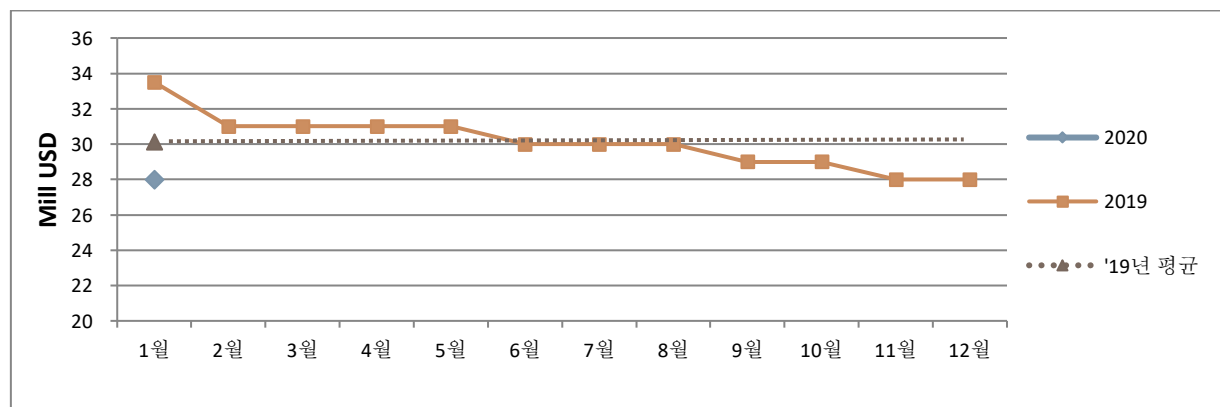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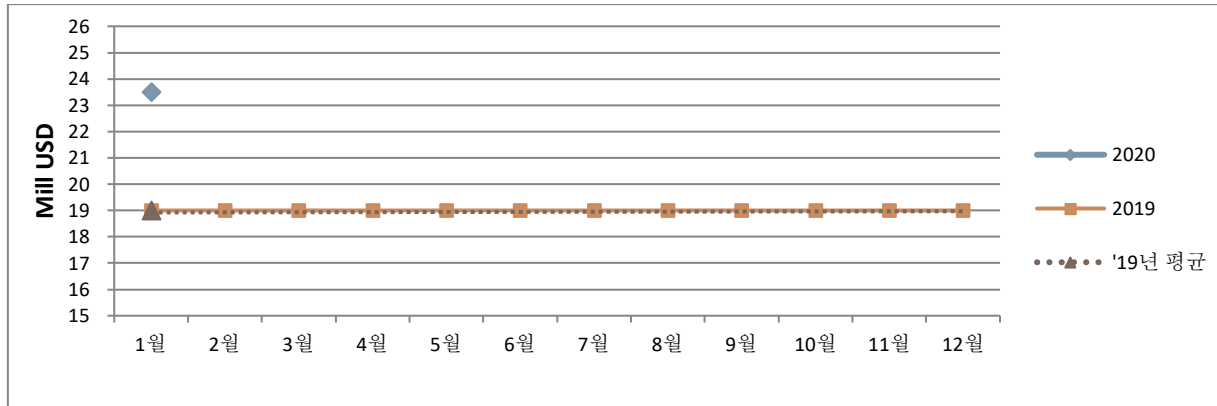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8.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6.4%					-7.1%
	KMAX 82K	선가	23.50					23.50
		전월대비	23.7%					-
		전년대비	23.7%					23.7%
	SMAX 58K	선가	17.00					17.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5.6%					-1.0%
	HNDY 37K	선가	16.50					16.5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2.9%					-2.5%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9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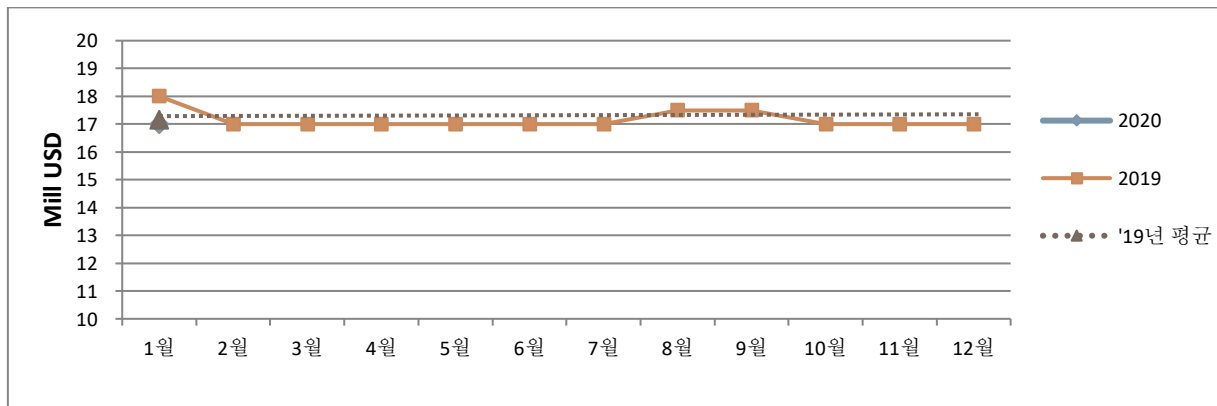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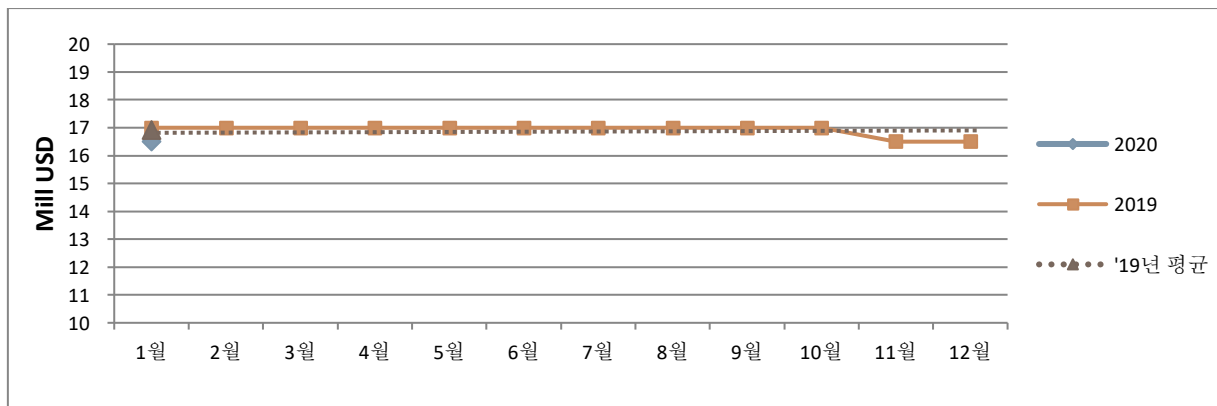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MAJESTIC SKY	81,949	2014	JAPAN	B&W		21.6	Japanese buyer
BC	NORD EVEREST	60,436	2016	JAPAN	B&W	C 4x30.5t	23	Japanese buyer, incl. 3 years t/c back to Sellers (Norden)
BC	EASTER N	58,740	2013	JAPAN	B&W	C 4x30t	15	Greek buyer
BC	SERENE JESSICA	57,300	2011	CHINA	B&W	C 4x30t	10.19	
BC	SERENE JUNIPER	57,300	2011	CHINA	B&W	C 4x30t	10.16	Chinese buyer
BC	SERENE SUSANNAH	57,300	2010	CHINA	B&W	C 4x30t	9.9	
BC	SERENE LYDIA	57,300	2010	CHINA	B&W	C 4x30t	9.75	
BC	KSL RUIYANG	56,872	2010	CHINA	B&W	C 4x36t	9.8	
BC	OCEAN KNIGHT	56,755	2011	CHINA	B&W	C 4x30t	12.25	Undisclosed buyer
BC	FRIEDA SELMER	55,718	2004	JAPAN	B&W	C 4x30t	9	Undisclosed buyer, SS/DD freshly passed last month
BC	NORD FUJI	55,628	2011	JAPAN	B&W	C 4x30t	13.3	Chinese buyer (Far Eastern buyers)
BC	CALM BAY	37,534	2006	JAPAN	MITSU	C 4x36t	7.8	Greek buyer
BC	CANVASBACK	34,420	2011	KOREA	B&W	C 4x35t	8.5	Chinese buyer
BC	GLOBAL GARLAND	32,115	2009	JAPAN	MITSU	C 4x30t	7.5	Greek buyer, DD due
BC	GEORGIA (box, open hatch)	28,685	2000	JAPAN	B&W	C 4x30.5t	4	Greek buyer
BC	BAYERN S	23,441	1994	JAPAN	B&W	C 4x30,5t	3.0	Undisclosed buyer
BC	MARPESSA	17,386	1996	CHINA	B&W	C 3x25t	2.1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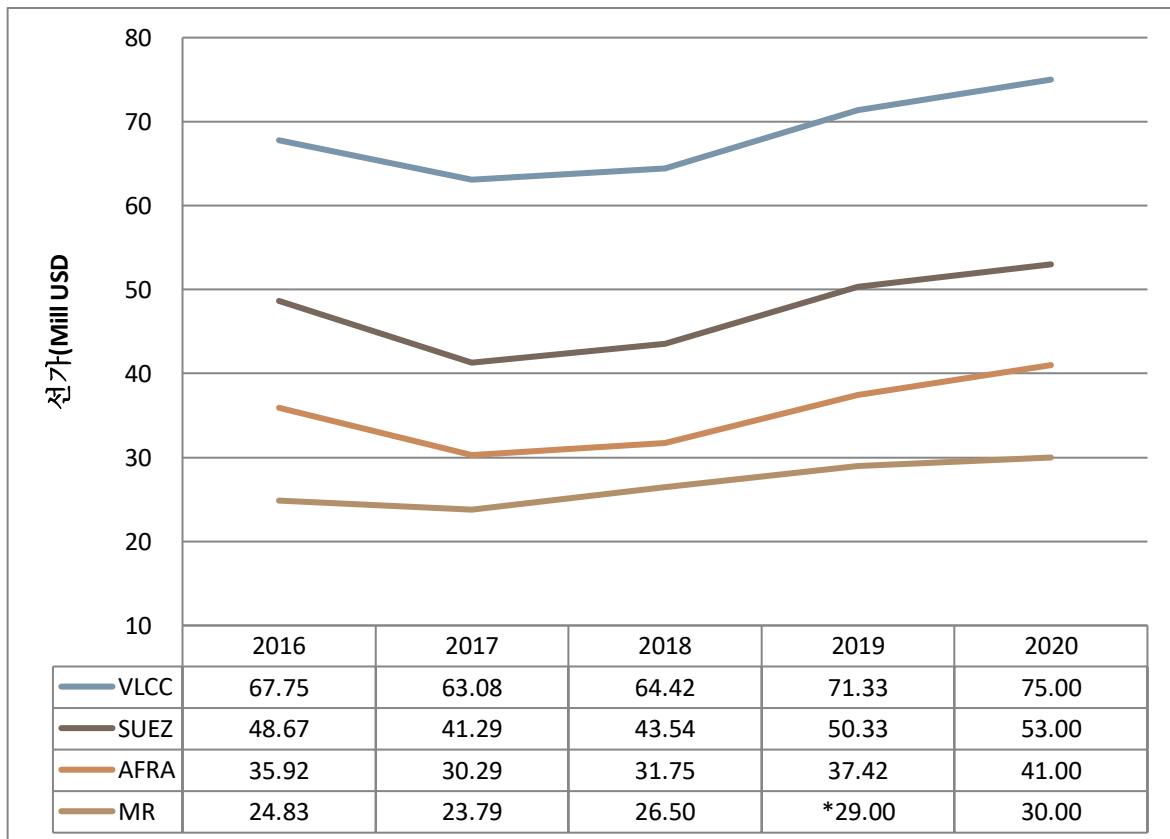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5.00
	-16.15%	-6.89%	2.11%	10.73%	5.14%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53.00
	-18.34%	-15.15%	5.45%	15.60%	5.30%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41.00
	-21.24%	-15.66%	4.81%	17.85%	9.58%
MR 51K *18년까지는 49K 기준	24.83	23.79	26.50	*29.00	30.00
	-10.35%	-4.19%	11.38%	9.43%	3.45%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92	12.42	11.77	10.90	10.50
	10.45%	-10.78%	-5.20%	-7.43%	-3.63%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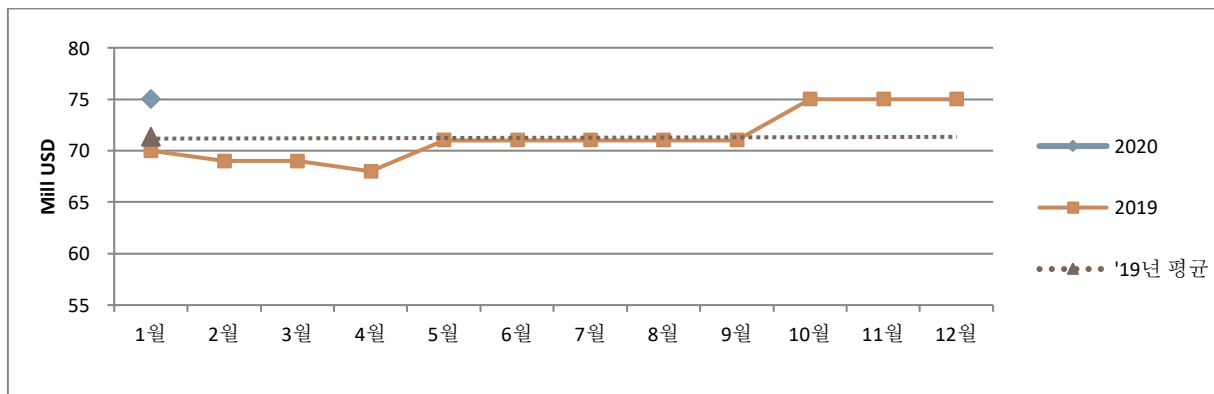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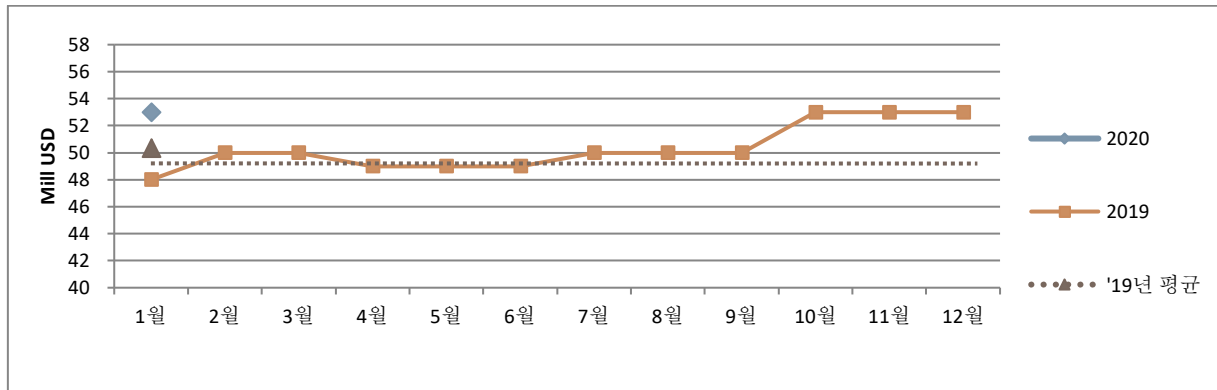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5.00						75.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7.1%						5.1%
	SUEZ 160K	선가	53.00						53.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0.4%						5.3%
	AFRA 105K	선가	41.00						41.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7.1%						9.6%
	MR 51K	선가	30.00						31.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7.1%						6.9%
CHEM IMO2 13K	선가	10.50						10.5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4.5%						-3.6%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29.00	
	CHEM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0.9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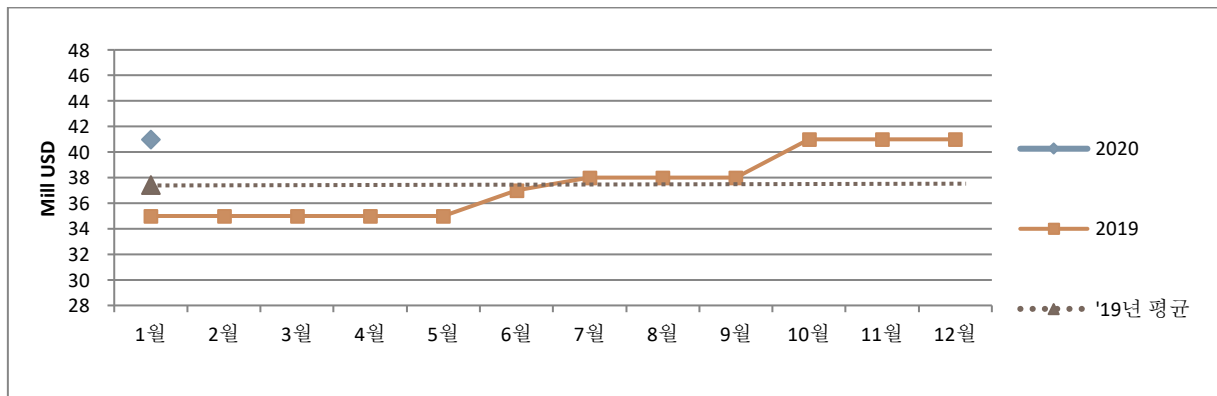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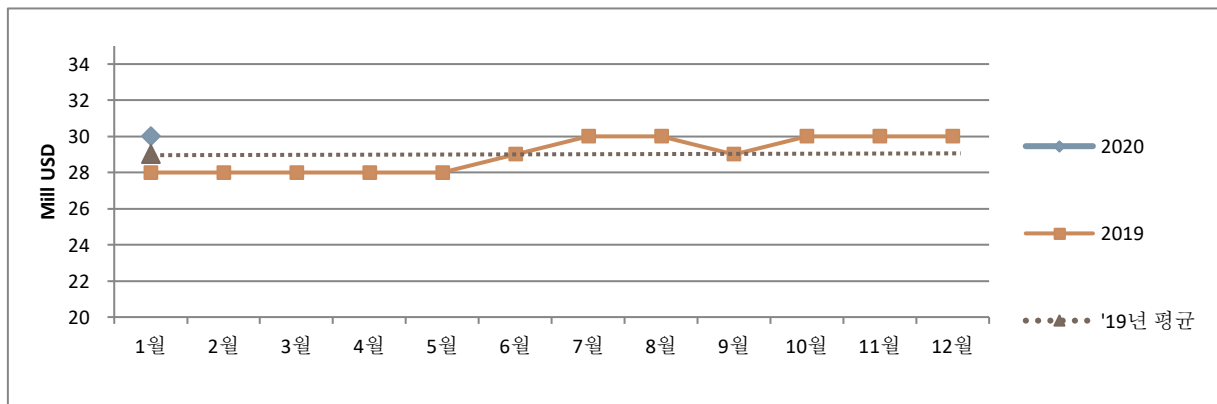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ECTAR	307,284	2008	CHINA	WART		42.0	
TANKER	NOBLE	307,284	2008	CHINA	WART		42.0	Chinese buyer (TPSH Leasing), incl. 4.5yr BBBack
TANKER	NAUTICA	307,284	2008	CHINA	WART		42.0	
TANKER	RIDGEBURY PRIDE	305,994	2000	KOREA	B&W		25	Undisclosed buyer
TANKER	KIWI	300,000	2020	KOREA	B&W		105	Tripartite joint venture (Economou/Ofer/Spetalen)
TANKER	JIN-EI	299,998	2005	JAPAN	B&W		35	Greek buyer
TANKER	TENYO	281,050	2000	JAPAN	MITSU		20	Undisclosed buyer
TANKER	NARMADA SPIRIT	159,199	2003	KOREA	B&W		19.1	Greek buyer (New Shipping)
TANKER	AQUABLISS	112,930	2019	KOREA	B&W		55	Greek buyer (Minerva)
TANKER	AQUAFREEDOM	112,930	2019	KOREA	B&W		55	
TANKER	NORTHERN PEARL	108,468	1999	JAPAN	SULZ		7.5-7.7	European buyer
TANKER	BLUE SUN	105,856	2000	KOREA	B&W		13.5	Kuwaiti buyer
TANKER	GULF CASTLE	74,999	2009	KOREA	B&W		18.6	USA. Buyer (International Seaways)
TANKER	LIBERTY	46,803	2004	KOREA	B&W	3	10.75	Undisclosed buyer



III. TANKER

TANKER	EVER GRANDEUR	45,727	2004	JAPAN	B&W		9	Undisclosed buyer
OIL/CHEM	KAIROS	47,358	1998	CROATIA	B&W	3	6.5	Undisclosed buyer
OIL/CHEM	FIDO	46,803	2004	KOREA	B&W	3	11.3	Undisclosed buyer
OIL/CHEM	ECO REVOLUTION	39,208	2016	VIETNAM	B&W	2&3	20.2	Norwegian buyer
OIL/CHEM	ECO FLEET	39,208	2015	VIETNAM	B&W	2&3	20.2	
OIL/CHEM	NAVIG8 AQUAMARINE	37,596	2015	KOREA	B&W	2	26.5	Singapore buyer (Navig8 Chemical Tankers), purchase option declare
OIL/CHEM	PIS PATRIOT	17,527	2008	KOREA	B&W	2	12.2	Undisclosed buyer
LNG	WILFORCE	86,363	2013	KOREA	WART		175	Chinese buyer (China Construction Bank), 10Y BBB+repurchase option
LNG	WILPRIDE	86,292	2013	KOREA	WART		175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CAPE NASSAU	23,327	2010	CHINA	MAN	1740	TEU	6.8	Singapore buyer
CONT	MERCS JAFFNA	16,908	2009	CHINA	B&W	1368	TEU	4.8	German buyer
MPP	HAI SU 5	8,400	2007	CHINA	MAK	698	TEU	2.4	Chinese buyer
MPP	CRYSTAL VLADIVOSTOK	5,560	2002	CHINA	MAK	505	TEU	-	Russi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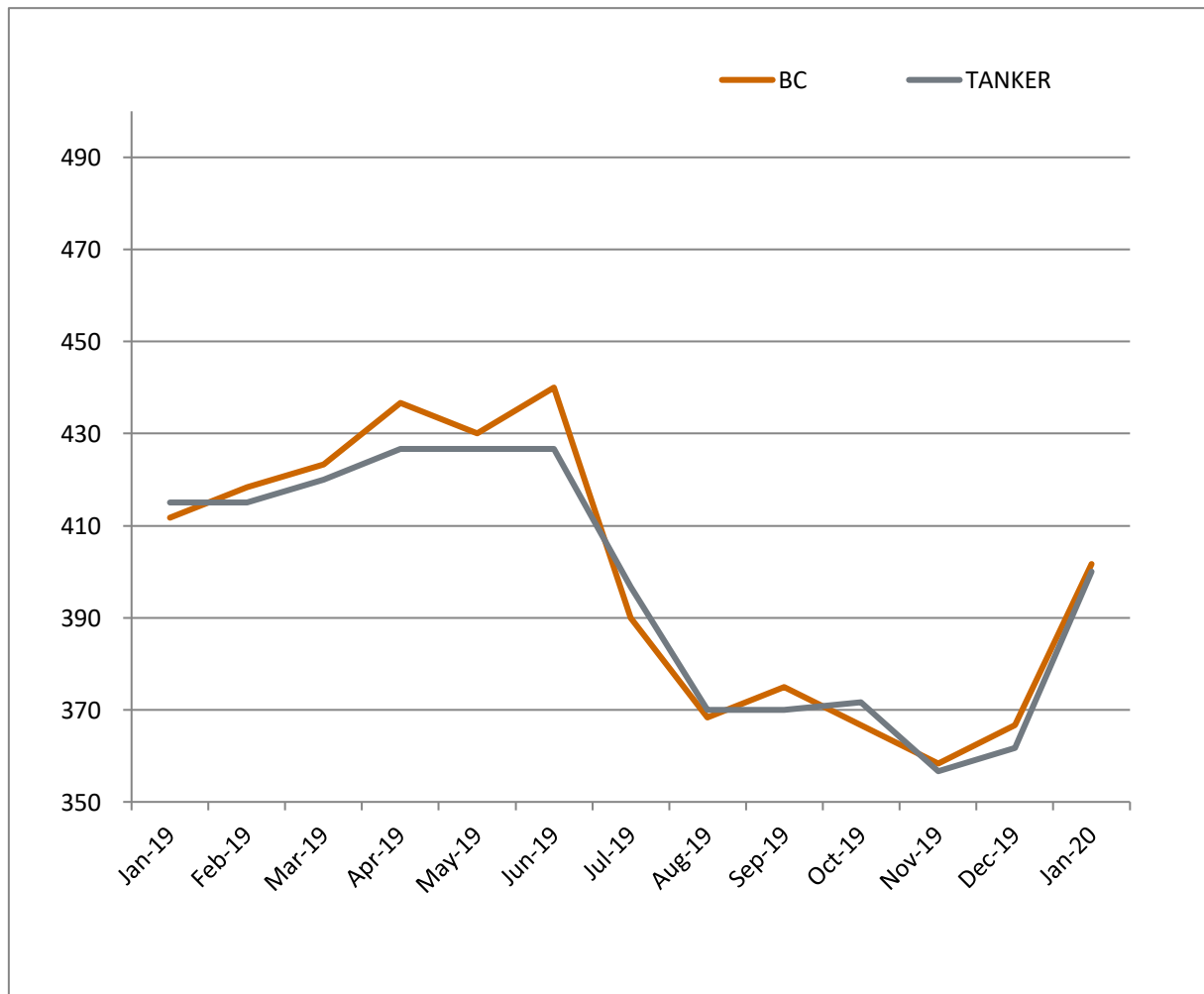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1 월	2020 년 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400.00	0.9%	415.00	400.00	10.6%	-3.6%
BC	440.63	18.8%	398.75	-9.5%	401.67	0.7%	411.67	401.67	9.5%	-2.4%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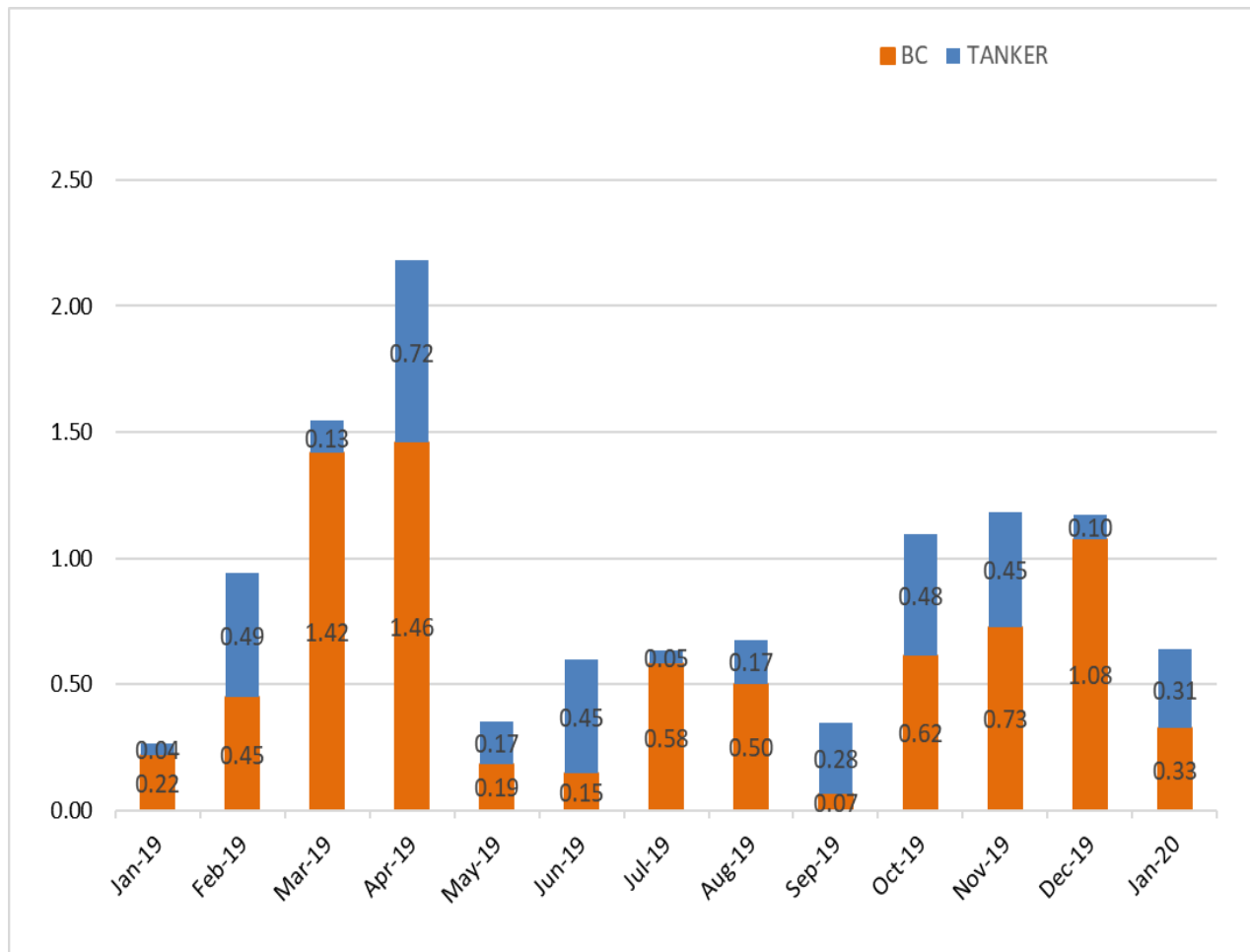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9 년 1 월		2020 년 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3.54	17.0%	97	49.7%	0.04	4	0.31	609.9%	4	0.0%
BC	4.20	112	7.45	177.3%	116	103.6%	0.22	5	0.33	47.7%	2	-6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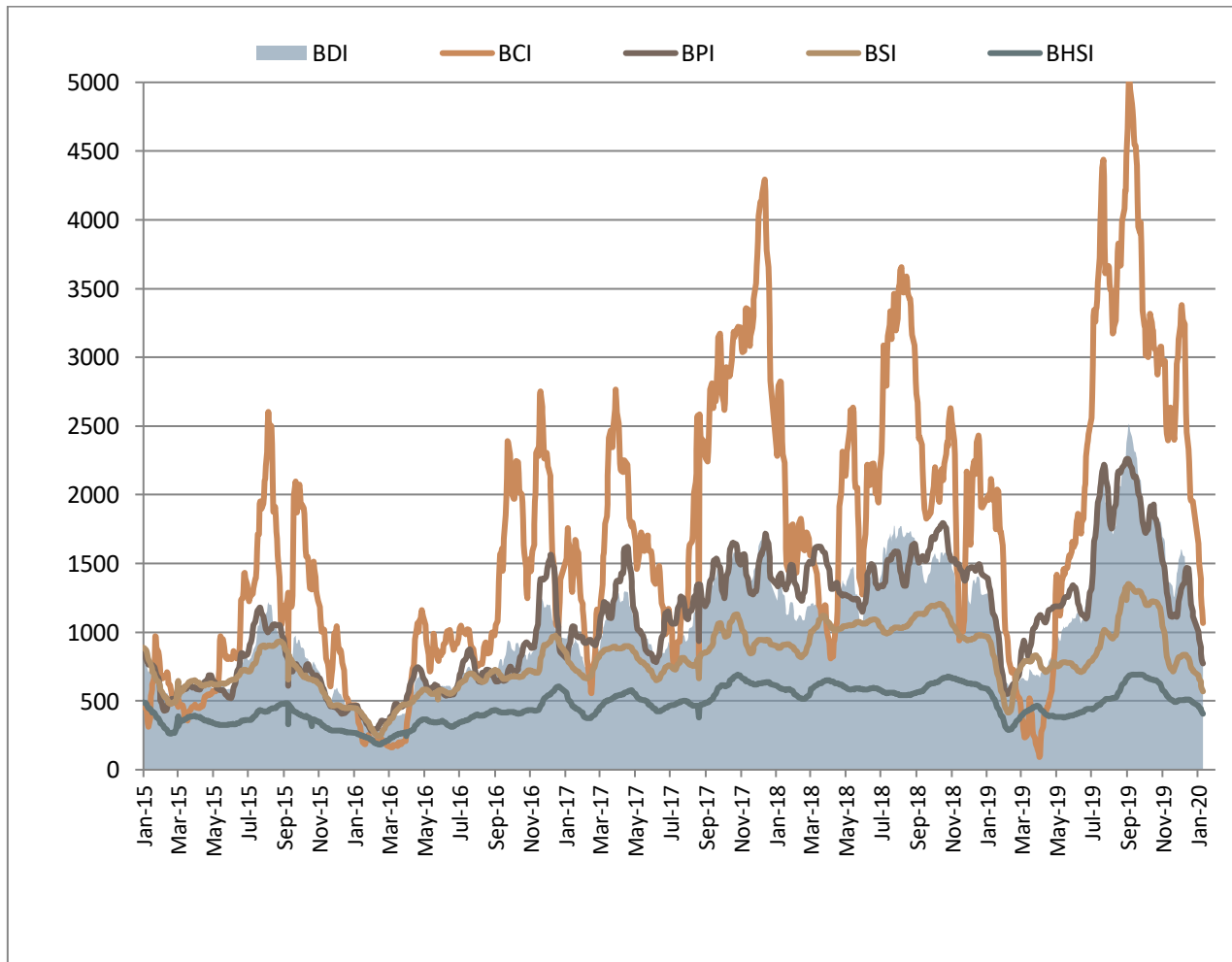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BERGE HUA SHAN	268,743	33,385	1993	JAPAN	SULZ	420	BANGLADESH, abt 340 ts ROB, old sale
BC	STELLAR JOURNEY	267,006	39,118	1994	JAPAN	SULZ	389	BANGLADESH, old sale
BC	CRASSIER	172,492	20,958	2000	JAPAN	B&W	406	Full sub-conti
BC	BERGE ELBRUS	155,626	38,047	1991	KOREA	B&W	409	BANGLADESH
BC	HL ROBERTS BANK	135,069	17,600	1994	KOREA	B&W	--	BANGLADESH, old sale
CONT	EVER DEVELOP	55,515	21,520	1998	JAPAN	MITSU	420	INDIA
CONT	EVER DYNAMIC	55,515	21,820	1998	JAPAN	MITSU	395	AS IS SINGAPORE
CONT	SAWASDEE LAEMCHABANG	27,254	6,742	1994	GERMANY	MITSU	432	INDIA, incl.490ts ROB
CONT	GANTA BHUM	18,196	6,133	1995	JAPAN	B&W	390	AS IS INGAPORE, old sale
CONT	HUNSA BHUM	18,196	6,133	1995	JAPAN	B&W	390	
CONT	SINOKOR ULSAN	4,130	2,009	1990	JAPAN	MITSU	432	INDIA
TANKER	SAFANIYAH	300,361	47,342	1997	JAPAN	MITSU	393	AS IS JEBEL ALI
TANKER	STENA SIRITA	126,873	23,862	1999	JAPAN	B&W	260	TURKEY, Green Recycling, Laid up in Norway
TANKER	AL MARZOQAH	105,083	17,092	1999	KOREA	B&W	348	AS IS SHARJAH, Damaged condition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01-10	2020-01-03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774	907	▼-133.00	2518	290
BCI	1066	1507	▼-441.00	5043	92
BPI	771	949	▼-178.00	2262	282
BSI	570	662	▼-92.00	1351	243
BHSI	408	452	▼-44.00	692	183





V.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86.00	▲19.00	303.50	▲7.50	346.50	▼-9.00
IFO180	399.00	▲0.00	327.50	▲4.00	390.00	▼-5.00
MGO	707.00	▼-25.00	571.00	▼-38.50	639.50	▼-39.50
LSMGO	714.50	▼-2.50	574.00	▼-35.50	-	-
VLSFO	703.00	▼-21.50	559.50	▼-34.00	628.50	▼-33.00

❖기준일 : 1 월 10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01-10	2020-01-03	CHANGE
미국 달러	1160.00	1156.90	▲3.10
일본 엔(100)	1059.60	1065.53	▼-5.93
유로	1288.47	1292.66	▼-4.19
중국 위안	167.50	166.12	▲1.38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금융용어] 피크 시대(decade of peak)

피크 시대(DECADE OF PEAK)란 정점의 시대란 말로 미국 투자은행인 BOA 메릴린치가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다.

BOA 메릴린치는 "2020 년대는 정점의 시대(THE 2020'S IS THE DECADE OF PEAK)"라고 진단하며 글로벌 경제가 총수요 위축으로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피크쇼크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크쇼크의 징후는 인구(PEAK YOUTH)나 원유(PEAK OIL) 등 에너지, 자동차(PEAK CAR) 등 경제와 사회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며 향후 10 년을 바꿀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와 원유의 수요는 이미 정점에 이르고 있다.

원유는 대체 에너지의 급격한 발전으로 향후 10 년간 수요 증가율이 더디게 증가하다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원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동차도 전기차로 대체되는 등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미 관련 기업들은 정점(PEAK) 이후의 시대를 고민하고 있다.

인구 측면에서도 2020 년대는 전 세계 인구에서 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줄어드는 피크유스(PEAK YOUTH)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저출산 고령화가 소비 성향을 바꾸면서 내수 위축과 지방 도시 소멸 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피크 시대는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사회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대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